

韓國住宅建築의 實相

1970年代 住宅建築樣式

尹 承 重
(原都市建築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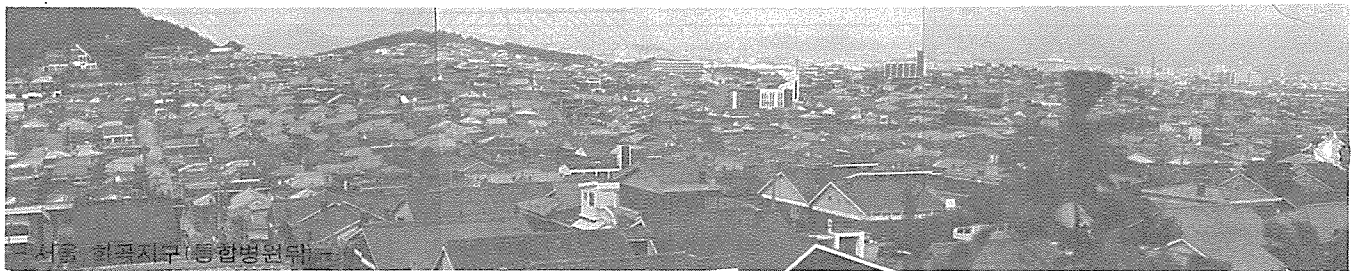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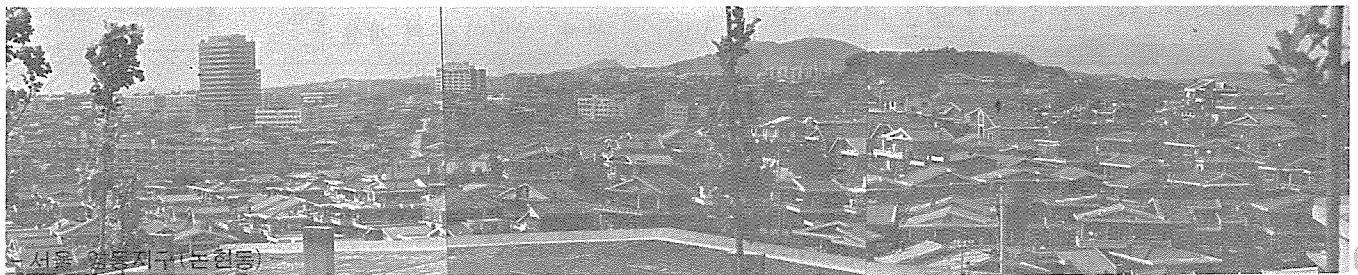
건축은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의 한 구체적 표상이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느 지역의 주택건축은 대중의 문화의식과 생활감각의 수준을 잘 대표하는 것이다. 주택건축은 대체적으로 소수의 엘리트건축가들의 개인적 논리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기 보다는 다수 대중들, 즉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가운데서 경험되는 요구와 감각과 지혜들이 함께 연출해 내는 결과 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마다 그 지방의 특유의 생활방식이나 감각에서 비롯되는 주택형식과 스타일과 분위기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요즘 서울이나 대도시 주변에 새로 개발되는 주택가를 눈여겨 보면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스타일이 하나의 양식처럼 정형화 해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70년대식 양식이라고나할지 세계 어느나라와도 구별되는 특유의 풍경인건 분명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에 썩 아름답고, 조화되고,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마을의 풍경이라고 말할수는 없겠다. 도시민들에 의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선호되는 몇가지 두드러진 경향 가운데서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는지 나로서는 늘 기이하게 생각되어 진다.

주택들의 집합으로서 마을풍경을 만들어갈때 지붕이 띄우 중요한 조형요소가 되는데 지붕의 용마루를 남쪽 정면에 직각되게 즉 동서 긴방향으로 경사를 지우는 것이 거의 양식처럼 되어가고 있다. 지붕속에 생기는 큰 공간은 2층 내부스페이스의 분위기를 위해서도 또는 지붕속 방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것 같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들입자(入) 모양의 지붕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년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용마루를 지붕 중심에 단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도 방침을 정해서 이를 규제해보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 대부분의 도시민의 주택들은 붉은 벽돌을 의장재로 즐겨 쓰는데, 남쪽 정면만은 한결같이 화강석 돌붙임을 하는것이 거의 신앙처럼 되어 있는 것, 집주변에 콘크리트 난간을 장식처럼 붙이는 것, 기와주변을 투박한 콘크리트 파라펠트로 둘러싸는 것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며, 도시마을의 풍경을 해치는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멋없이 크기만한 알미늄창들, 알미늄 도어들, 어설픈 아취오픈, 쓸모가 분명치 않은 베란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디자인 모티프들이다. 그로테스크한 지붕을 가진 한결같이 크고 높은 대문은 골목분위기를 한껏 망치고 있으며, 마을의 이웃을 거부하고 있다.

수년전 부터는 이런 도시마을의 풍경이 농촌 마을로 이



식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어지는 농촌 주택들도 거의 어김없이 70년대식 양식이 채용된다. 생활패턴, 난방방식, 가족구성들이 다른채로 거의 관습적으로 선택되어지는것 같다. 시골의 가족들도 도시의 불란서풍(?)의 지붕을 가진 주택을 갖는 것이 하나의 꿈이었을까?

엄격한 유교적인 가족윤리제도하의 지켜져온 양반가의 독특한 공간 구성이나, 옥외 공간을 지혜롭게 활용한 도시민가의 수백년간의 전통양식은 개화 후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일제하에 소위 문화주택양식이 선각자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생활 방식의 개선이 계몽되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주택형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중반부터 주택공사와 산업은행 주택기술실이 주도한 ICA주택 등 공영주택이 입식생활을 지향한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디자인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인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사회 경제사정으로는 불가피하게 최소한 공간과 경제성을 최대의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으나, 거실을 생활중심으로 삼는 현대적인 주택형식의 기본이 된셈이다. 이 후 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는 서민주택의 대부분이 영세한 민간주택 개발업자(소위 집장사)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때부터 소위한 국적 주택양식이 불행하게도 이상감각적인 방향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진다. 미니 2층, 불란서식 지붕등 기괴한 유행어등이 탄생하였다. ICA 주택시절만 해도 규모는 영세하나마, 단정하고 정리된 소박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은 채로 유행화 되었으며, 공간구성도, 구조방식도 합리성이 무시되어 갔다. 건축 수업을 쌓은 지도적인 건축가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특별히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주택들 조차도 어떤 흐름에 영향 주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70년대 들어와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주택생산의 양상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여 점차 대형화, 고급화 되고,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 보급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영세 주택개발업자로 부터 점차 대형 주택업자 쪽으로 주역이 이관되어 가는 중에 있다. 정부의 500 만호 주택건설 의욕은 최근에 현실적으로 약간 수정되었지만, 정부의 힘으로만 될 일이 아니다. 최근에 당국이 실험적으로 시행해 본 대형주택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입찰 방식등도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이나 대형회사들이 가까운 목표를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비한 적극적인 연구를 유발시켜 주택생산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참다운 생활환경을 갖는 도시마을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을 함께 과제로 삼아야 할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건축은 문화수준의 표현이므로 하루 아침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자고로 높은 문화 감각을 소유한 것으로 자부하는데 썩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1970년대식 주택양식(?)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건축가들의 노력을 보태어 바람직한 80년대식 양식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

